■ 25일 대선후보 등록 9인 재산·납세·병역 비교

재산 이명박 353억원 1위…정동영 11억원

17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9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갖췄다.

이날 현재 등록을 마친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참주인연합 정근모, 새시대참사람연합 전 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등 9명이다.

후보자 9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이명박 후보가 3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민 후보가 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명박, LKe뱅크 출자지분 30억원도 신고
정동영 육군 만기제대…이명박 병역면제판정
후보 9명, 전과 등 범죄 경력 해당사항 없음

◇**재산**=이명박 후보는 작년말 현재 353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2005년말 178억9천여만원보다 175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이 후보가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수익을 낸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변동된 공시가격을 신고토록 했기 때문이라는 게 캠프측 설명이다. 이 후보는 논현동 토지(11억5천여만원), 논현동 주택(51억2천여만원),서초동 영포빌딩(118억8천여만원), 서초동 상가(90억4천여만원) 등을 신고했다. LKe뱅크 출자지분 30억원도 재산신고 대상에 올렸으며, 이 후보와 배우자의 예금액은 1억6천여만원 등도 있었다.

정동영 후보는 11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전북 순창군과 임실군 일대 임야 및 전답이 6천여만원이었고, 도곡동 아파트(6억8천만원), 서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3억원), 서대문구 빌라 전세보증금(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권영길 후보는 토지 및 건물(6억9천여만원), 예금·보험(3억9천여만원), 채무(1억9천여만원) 등 모두 9억1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인제 후보는 자곡동 주택 등 11억9천여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국현 후보는 5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비중이 큰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유가증권 보유비율이 높다는게 특징이었다.

◇**납세**=재산순위에서 수위에 올랐던 이명박 후보가 5년간 납세액도 가장 많았다. 이 후보와 배우자의 5년간 납세액은 12억1천342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문국현(7억7천849만원), 정근모(1억7천931만원), 권영길(1억5천224만원), 심대평(9천402만원), 이인제(6천739만원), 정동영(3천260만원), 금 민(1천872만원), 전 관 후보(472만원) 순이었다.

◇**병역·전과**=정동영 후보는 74년 입영 후 육군 만기제대했고, 두 아들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육군, 해병대로 입대해 복무중이다.

권영길 후보는 61년 입대했다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를 빨리 제대시키는 학보병제에 따라 2년만에 만기제대했다. 이인제 후보도 76년 입대해 만기제대했다. 문국현 후보는 72년 임관해 74년 육군 중위로 만기제대했다.

이명박, 정근모, 금민 후보 등 3명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63년 입영후 질병으로 귀가했던 이 후보는 64년 징병검사를 기피했다 재검을 받아 65년 병역을 면제받았다.

9명의 후보는 모두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檢, LKe뱅크 인감대장 확보…진위 파악 주력

김경준씨 구속 내달 5일까지 연장, 고강도 수사
한나라, BBK 무대응 전략으로 U턴…종결 선언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른바 이면계약서와 같이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찍혀 있는 LKe뱅크의 인감 관리 대장을 확보하고 대조 작업을 펼치는 등 이면계약서 진위 파악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LKe뱅크의 인감 관리 대장은 LKe뱅크가 각종 계약 서류 등에 쓰기 위한 이른바 '공식' 도장들을 등록해 놓은 회사 문서로서 김경준씨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는, 이른바 이면계약서라는 한글 주식 거래 계약서에 찍혀 있는 이명박 후보의 도장이 이 인감 대장에 있는 도장과 똑같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또 "한나라당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합의를 하고 이 도장을 LKe뱅크의 대표이사 직인으로 사용하라며 김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씨의 주장에 따라 실제 이 후보가 도장을 넘겨줬는지와, 이 대장이 진짜인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 측이 제출한 한글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김씨가 지난 2000년 6월 금감위에 제출한 eBK 자금조달 확인서에 찍힌 것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고 집중 수사 중이다.

이 후보가 2000년 2월 김씨에게 BBK 주식 61만주를 50억원에 판다는 내용을 담은 이 계약서가 진짜라면 이 후보가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이 됐던 회사인 BBK를 소유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김경준씨 측이 공개한 계약서 찍힌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 뒤늦게, 사업상 서류를 제출할 때 쓰도록 LKe뱅크에 맡긴 도장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김경준씨에 대한 구속기한을 다음달 5일까지 열흘 연장하고 김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 등록(25~26일)을 기점으로 'BBK 사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전략을 틀었다.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공방에 일일이 대응해봤자 파문 확산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경준씨가 제시한 '한글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BBK 주가조작 사건의 종결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위조와 사기 전문가들이 또 다른 문건을 들고 나와 국민을 현혹시키고, 이들을 부추기려는 일부 세력의 극성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에 개의치 않겠다"면서 "이는 일체의 사법적 공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27일께 특검법 입장 표명"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별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주에 밝힌 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과 국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4일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 대법회에서 '특검을 하든 아니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흑백을 밝히도록 돼있다'는 발언이 특검 수용 입장을 담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는 언급이고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원칙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받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장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 건·김종인, 정동영 돕나

鄭 "경제 드림팀 도와 주실것
高 전총리 조만간 찾아뵙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25일 '경제드림팀' 발족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가 하면 고 건 전 총리와 민주당 김종인 의원에 대해 적극적 구애공세를 펼쳐 주목된다.

이들이 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할 경우 그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중량급 외부 인사 영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이날 후보등록 기자회견에서 "고 전 총리를 조만간 찾아뵐 계획"이라면서 "고 전 총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깨끗한 정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부님으로 모시고 사숙(私淑) 해온 대선배님으로 오늘 기자회견도 감수해 주셨다"며 친분을 과시한 뒤 "'경제브레인' 학자들과 함께 '경제 드림팀'을 짜는데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경제 분야 명망가로 이뤄진 '경제드림팀' 구성을 준비중이며 조만간 그 진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드림팀'은 연합정부 구상의 한 축으로 검토되는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카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연합뉴스